sports.donga.com 2009년 6월 27일 토요일 10판S 제390호

김태균 3안타 2타점 홈팬에 화끈한 인사

김현수 끝내기안타…임태훈 10승



롯데 손민한이 프로 13년만에 개인통산 100승 고지에 올랐고, 29일만에 1군에 복귀한 'WBC 영웅' 한화 김태균은 3안타를 생산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두산 불펜 임태훈은 10승 고지에 오르며 다승 단독 1위로 치고 나갔다.

5위 롯데는 26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2009 CJ마구마구 프로 야구 한화와의 원정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을 기록한 손민한과 타선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6-4로 승리, 4위 싸움에 또 한번 불 을 당겼다. 1997년 1차 지명으로 롯데 유니폼을 입고 데뷔한 손민한은 올 시즌 3승째를 수확하며 프로 13년만에 '100승 투 수'(역대 20번째) 반열에 올랐다. '뇌진탕 후유증'으로 지난달 29일 2군행을 자청했던 김태균은 5번 타자로 선발 출장, 5타 수 3안타 2타점을 기록했지만 팀 패배로 빛을 잃었다. 꼴찌 한 화는 6연패.

'4위 싸움' 선두주자인 히어로즈는 광주 원정에서 올 신인 1차지명인 강윤구의 눈부신 호투를 앞세워 KIA를 3-0으로 셧 아웃시켰다. 강윤구는 총 99개의 공을 던져 6이닝 동안 8삼진 을 솎아내며 6볼넷 무안타로 '6이닝 노히트노런'을 기록, 꿀맛 같은 프로 무대 첫승에 입맞춤했다. 송지만은 4회 결승 솔로 홈런 등 2타점을 해결했다. KIA는 8회 나온 박기남의 안타로 간신히 '팀 노히트노런패'의 망신은 면했다.

선두 두산은 잠실 삼성전에서 4-4 동점이던 9회말 2사 1. 2루에서 김현수의 천금같은 끝내기 안타에 힘입어 5-4, 짜릿 한 1점차 승리를 거뒀다. 불펜 임태훈은 3이닝 무실점으로 SK 김광현 송은범, 히어로즈 이현승 등 '선발 9승 투수'들을 제치 고 다승 1위에 올라섰다. SK는 LG와의 문학 홈경기에서 6-3으로 승리했다. 새 용병 투수 글로버는 5.1이닝 2실점으로 첫 등판에서 승리를 챙기고 상쾌한 스타트를 끊었다. 'SK 킬 러' 심수창이 4.1이닝 5실점으로 무너진 LG는 27일 봉중근을 선발로 내세워 설욕전을 노린다. SK 선발은 김광현으로 예고 돼 또다른 빅카드가 성사됐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심장마비 사망 전세계가 추모의 물결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허민녕 기자 justin@donga.com

각국 매체들 불후의 명곡 내보내며 비통함 달래 마돈나 "위대한 사람 잃어…울음을 멈출수 없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51)이 팬들의 곁을 떠나 영원 한 전설이 됐다.

마이클 잭슨은 26일 오전 6시26분(한국시간/현지시간 25일 오후 2시 26분) 미국 LA 자택에서 심장박동 정지 증 세로 인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이날 자택에 서 급성 심장박동 정지 증세를 보인 뒤 UCLA 메디컬 센 터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LA검시소와 형인 저메인 잭슨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확한 사망 원 인은 26일 부검을 통해 나올 전망이다. 7월 영국 런던에 서 컴백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던 마이클 잭슨은 그동안 이 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는 그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니겠느냐고 추정하는 분위기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죽음 앞에 세계는 인종도, 종 교도, 사상도 잊은 채 한마음으로 비통함에 빠졌다.

그 슬픔의 크기는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둔 LA 집과 병원 으로 몰려드는 팬들의 숫자로,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내놓는 안타까운 메시지로 쉽게 가늠할 수 있다.

│ 기사 18면에 계속됩니다

파란만장한 삶…현대판 피터팬 / 비빔밥을 좋아했던 잭슨 18면 5조 벌었는데 3500억 빚? / 비"빌리진 보며 꿈 키웠는데…" 19면

오늘의 <u>८२</u>초등아

"이천수 쓰나?마나?"박항서의 딜레마 8면

허재감독"토토 전자카드 도입 반대" 11면

태연"형돈오빠가 원하면 결혼축가 OK" 16면

기록에 강하다! 모든 스포츠를 한눈에! 와이드 기록실 | 6면



내일 신문 쉽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0319호 (2009년 06월 15일)

프로야구 전적

〈26일〉

貪임태훈

5 [잠실] 4

삼성

●글로버 세전병두

6 [문학] 3 LG 심수창

★ 소민한 세에 에킨스

한화 █김혁민

❸강윤구 세신철인

ΚIΑ ᠍양현종

편집 | 안도영 기자 ydalove@donga.com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원 極甸間



월 19,640원으로 다쳐서 쓴 병원비도 치매간병비도/ 图 AIG 부모님보험

] 상해의료실비: 시고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지급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의료비 총액의 50% 적용. 다수계약이 경우 약관에 따라 비전보시함

4 필절 화상진단금: 상하시고로 인한 골절 상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확정시 지급

0-6050-109

80-6050-107